

# 예술사학자 하인츠 슈탈후트가 평가한 사진가 빛을 촬영하다 - 도 팔라디니

PHOTOGRAPHING LIGHT - ON DO PALADINI'S PHOTOGRAPHS  
Heinz Stahlhut, art historian

글 사진제공-김정현(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 교육전문위원회 위원, 사진교육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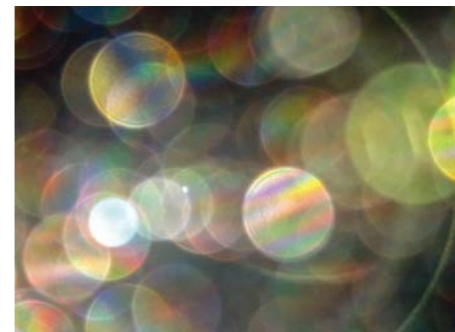


©at Gonggam Sonyoo\_dopaladini\_3\_2024

## Do Paladini 1970

8년 동안, 예술가 도 팔라디니(1970년 스위스 인터라켄 출생)는 빛의 모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독특한 사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빛 사진의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현실-초현실적이며, 미묘한 물질성과 그 색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독일 예술사가 볼프강 쇠네는 1954년 저서 "회화에서의 빛에 관하여"(Über das Licht in der Malerei)에서 오늘날 연구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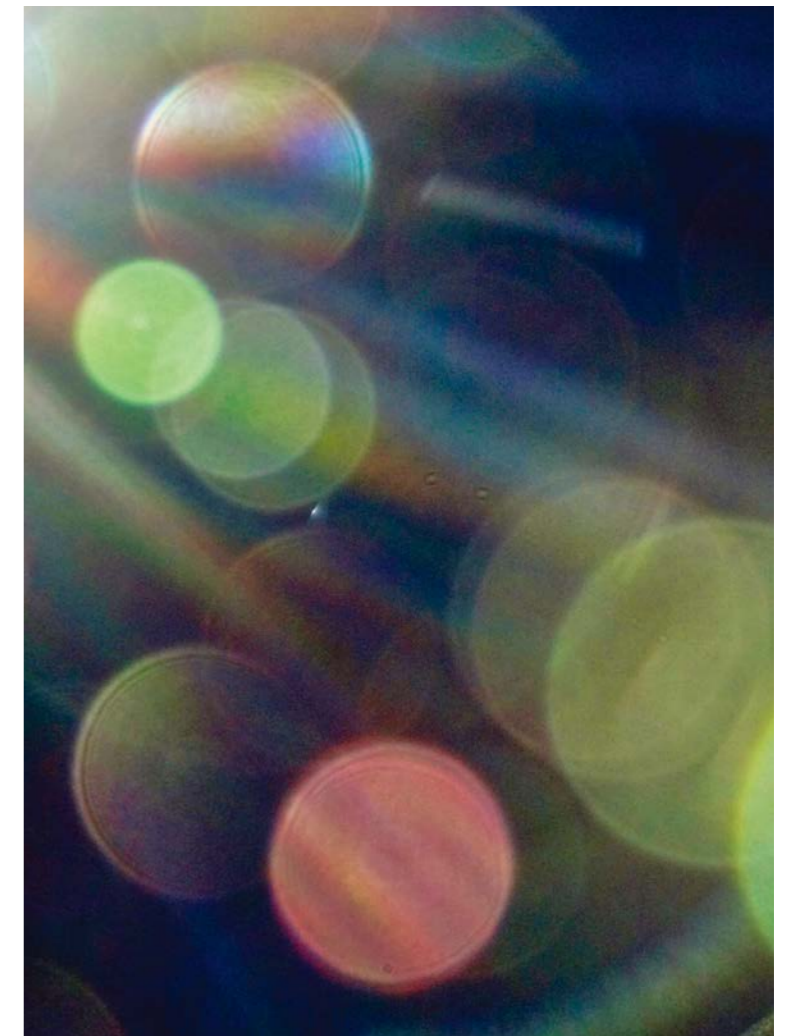
적 빛 처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중세 회화의 금색 배경을 가진 자가 빛 또는 전도된 빛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이미지 자체가 관찰자인 우리에게 내재된 빛을 방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를 현대 회화의 투사된 빛 또는 조명된 빛과 대조합니다. 이는 가시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빛의 원천에서 이미지의 객체로 빛을 비추어 예술 작품의 조명된 이미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찰자가 예술 작품을 보는 빛의 종류인 위치적 빛을 설명하는데, 이는 작품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닙니다.



©DO PALADINI\_INTERMEZZO I\_(left)\_2013\_limited Edition 2020



©DO PALADINI\_SUDDEN SUMMER\_2013\_limited Edition 2023



©DO PALADINI\_COMPOSER\_2012\_limited Edition 2022

## 이미지의 빛

쇠네가 고안한 개념 중 하나를 도 팔라디니의 초기 작품에 적용해 보려 한다면, 이러한 개념들이 어느 것도 진정으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빛나는 배경에서 발산되는 전도된 빛도 없고, 이미지가 보이는 위치적 빛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들에서 빛의 효과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조명된 빛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진의 주제가 될 만한 조명된 객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는 도 팔라디니의 사진에서 빛 자체가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지개의 모든 색으로 반짝이는 다양한 크기의 이 원들은 서로 겹치고 교차하며 깃털처럼 가볍게 떠오르거나 단일 고정 형태로 구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관습과 인식

이 작품들에서 도 팔라디니는 고전적 모더니즘의 발자취를 두 가지 측면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매체의 자기 반사성을 참고하는 동시에 보통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라즐로 모홀리너지(1895-1946)와 같은 고전적 모더니즘 운동의 예술가들은 예를 들어 일상적인 주제에서 벗어나으로써 세계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열기를 희망했습니다. 모홀리너지는 우리의 인지적 시각을 수정하는 것이 사진의 중심 기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눈과 뇌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자동으로 "정확한", 즉 관습적인 관계로 정리하고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그것이 무엇인지, 즉 상대적 관습임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카메라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모홀리너지에 따르면, 우리가 얼굴 앞에 발이나 손을 두면,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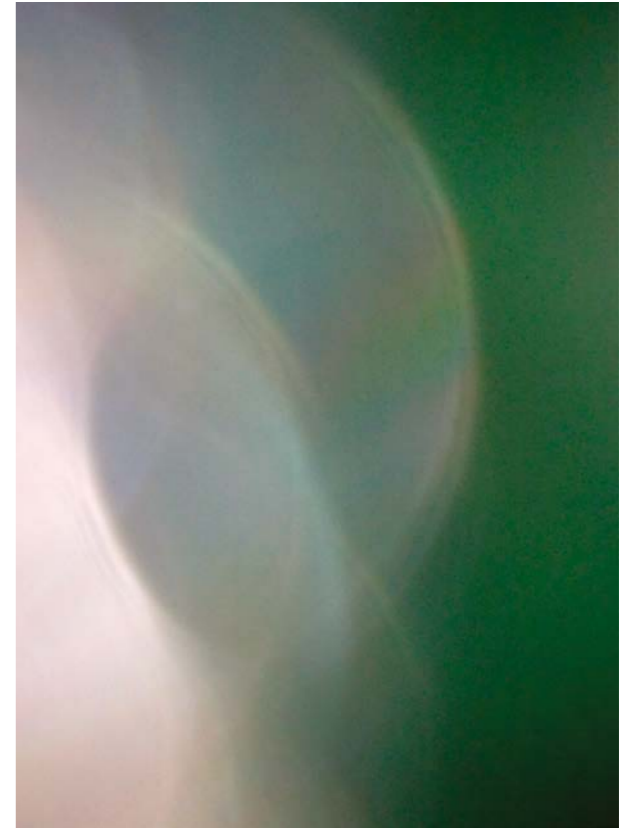
작가와의 인터뷰\_DO PALADINI(사진 맨 오른쪽), 김정현 교수(사진 맨 왼쪽)



©Gonggam Sonyoo\_dopaladini\_with MRS. CHOO, MR. GREGOR MUNTWILER\_2024



©DO PALADINI\_SPRING IS NEAR\_2013\_(limited Edition 2022)



©DO PALADINI\_THE MUSE OF PEACE\_2013\_limited Edition 2022

사진 지식은 즉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치수를 변형시켜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과 "정확한" 비율로 만듭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이러한 조정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모홀리너지에게 사진은 이 점에서 우리의 이전 지식의 필터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는 또한 사진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폴 클레가 1920년 "창조적 고백"에서 간결하게 요약한 "예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아이디어로 요약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예술은 인간 인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 매체의 기본 원칙

도 팔라디니가 그녀의 사진에서 빛 자체를 포착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매체 자체의 기원으로 돌아갑니다. 초기 사진 시절에는 빛이 사진 판에 스스로 새겨지는 사진 원리를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 영국의 사진 개척자 윌리엄 헨리 폭스 탈벗(1800-1877)은 그의 새로운 사진 매체에 대한 기초 작업을 "자연의 연필"이라고 명명하여 빛이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자연의 힘을 의인화하는 아이디어는 우주 전체가 영혼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던 전근대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며 고전적 모더니즘의 신비로운 측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팔라디니는 빛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에 굴절된 빛의 효과만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팔라디니의 사진에 묘사된 원형 형태는 특히 디지털 사진에서 먼지 입자에 반사된 빛으로 인해 발생하며, 디지털 카메라는 이를 개별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빛이 그 경로의 장애물을 통해 굴절되어 진동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야만 볼 수 있다는 사실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팔라디니의 예술도 보이는 것을 재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Do Paladini SPACE OF HEALING



©DO PALADINI\_THE MUSE OF POETRY\_2013\_limited Edition 2022

### 〈전시서문〉

도 팔라디니는 1970년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출생한 작가이다. 어린 시절부터 소리와 예술의 세계에 빠져든 그녀는 창작에 대한 깊은 열정을 키워왔다. 팔라디니의 예술은 사진이 회화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특히 작가는 그 특별한 지점에서 발견한 빛의 미묘한 매력에 흥미를 느끼고 매료되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팔라디니의 지속적인 헌신과 연구의 결실이다. 팔라디니는 디지털 사진 연구에 몰두하여 자연의 빛을 활용해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최근 출간된 그녀의 작품집에서 그동안의 창작 활동을 간략히 엿볼 수 있다.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1만장 이상의 빛 사진을 섬세하게 촬영하였으며, 그 중 104점이 선별되어 수록되었다. 팔라디니는 '힐링의 공간'으로 관객의 시선을 초대하여 빛이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과 다양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내면의 감정과 깊게 소통하여 심도 있는 성찰과 소통의 기회를 얻길 희망하고 있다.